

# 비무장지대의 합리적 보전 및 관리

본고는 지난 2000. 9. 28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임업연구원이 주관하고 동북아 산림포럼, 국회 환경포럼이 공동주최한 심포지엄 내용이다. - 편집자

## 비무장지대의 자연환경

### ○ 비무장지대의 산림생태계 현황

비무장지대는 동서로 가로지르는 248km의 휴전선을 따라 남북으로 각기 폭 2km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동안 남한에서는 비무장지대의 남방한계선에서 다시 남쪽으로 10~20km의 지역을 민간인 출입통제관리 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생태경관을 형성하여 진귀한 새와 짐승, 곤충, 식물 등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서식처를 제공하였고 동·식물 지리학적으로도 많은 희귀종과 임계종이 분포·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무장지대 산림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학계와 공동으로 각 분야(식생, 입지환경, 산림자원, 곤충, 야생동물, 미생물) 전문가들로 구성된 종합조사단을 구성하여 ① 동해안 석호, 습지 및 계곡을 형성하는 동부해안권, ② 산악 및 고층습원 일대인 중동부산악권, ③ 한탄강 상류수 계습지

와 용암대지를 포함하는 중서부내륙권, ④ 그리고 염습지, 구릉지 일대인 서부해안권 등에 대해 연차별로 조사하였는데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형은 동고서저형으로서 비무장지대의 내부의 토지면적은 90,703ha 정도 이었고, 이중 산림이 75.5%, 초지가 20.3%를 차지하였다. 산림자원은 임목축적량이 ha당 27m<sup>3</sup>로 추정되었습니다.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의 토양은 갈색산림토양이었으며, 산림계류수질에 있어서는 중동부산악지역과 중서부내륙지역의 경우는 청정한 상태이었으나 동부산악 및 해안지역은 먹는물로 부적합한 상태였습니다.

식물상은 한국특산식물 금강초롱꽃, 정향풀 등 1,000여종의 분포가 확인되었고, 포유류는 산양 등 천연기념물 5종을 포함한 30여종이 발견되었으며, 조류는 원앙 등 천연기념물 12종을 포함한 150여종, 파충류

는 한국특산이자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16종, 양서류는 세계적 희귀종인 금개구리 등 12종, 그리고 어류는 한국특산종인 금강모치 등 40여종이 발견되었습니다. 곤충상에서는 꼬마길앞잡이를 포함한 희소종과 희색좁나방 등 다양한 미기록종이 발견되었으며 미생물상에 있어서도 신종인 선비먼지버섯 등을 포함한 미기록종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비무장지대의 국토계획적 조명

비무장지대의 이용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각자의 논리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이용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친 이용보다는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이라는 국토종합계획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이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계획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의 활용은 자연보전상태와 지형·지세 그리고 주변 환경 등 복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국토의 활용차원에서 계획되어야 할 것이며 관리방향은 크게 네 개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서부연안지역인 한강하구와 임진강 수계지역으로 수도권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활발한 개발을 예상할 수 있으나 비무장지대로 인해 억제되고 있는 지역이며, 둘째는 서부내륙지역인 연천에서 철원에 이르는 지역으로 교통의 요지

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압력이 거세질 것입니다. 셋째는 중부내륙지역인 화천, 양구, 인제에 이르는 지역으로 자연생태계가 대체로 잘 보전된 지역이며, 넷째는 동부해안지역인 금강산, 설악산 등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자연환경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입니다.

비무장지대의 남북공동이용 방안으로는 첫째는 주요 교통 및 에너지망 연계가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는 남북간 주요 교통지역을 중심으로한 교류협력지구 조성 및 협력 사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무장지대의 토지이용 및 교류협력추진은 우선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하는 남북간의 협정을 체결해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자연보전 차원에서 본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접근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환경보호를 위한 접근은 현실적 접근, 경제적 접근, 평화적 접근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접근은 남한만의 관점에서 비무장지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한민족

의 발전을 염두에 둔 접근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비무장지대의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접근입니다. 비무장지대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는 합리적이며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수단으로서의 계획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및 민통지역의 습지는 규모면에서 국제적 규모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 조류의 숫자나 생물다양성 등 질적인 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남·북 공동 정밀조사를 통해서 람사 사이트로의 지정절차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와 민통지역의 습지는 우리 한반도의 중요한 유산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복지와 삶의 질은 습지를 포함한 자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습지는 우리의 토지와 수자원 사이의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비무장지대에서의 상당히 많은 습지가 피해를 받거나 상실되어, 남아있는 습지가 그만큼 더 귀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남·북이 협력하여, 우리의 현시대와 미래세대는 물론, 다른 생물종을 위하여 습지가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된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습지를 보호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

다. 더 나아가서는, 비무장지대 및 민통지역의 습지생태계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모형을 적용하는 benchmarking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비무장지대의 인문환경

### ○ DMZ와 인접지역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견해

DMZ는 군사적 용도 이외에도 민족의 분단을 실체화하는 상징으로서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내재화되어 있는 일종의 “마음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DMZ 인접지역의 특이한 문화현상은 후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고립된 환경이나 군이 통제하는 특수한 현상과 얽혀 생성되는 제설종합현상(synchretism)입니다. 본래의 문화요소와 외부의 문화요소가 접촉, 새로운 문화요소의 출현을 의미하는 신크레티즘 현상은 이 지역 문화의 특수한 현상으로 보입니다.

남과 북의 화해를 가정하고, 이 지역(DMZ) 주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란은 여러 각도에서 있어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특수한 지역으로서 DMZ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들 나름대로의 활용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크게 대별하

여 보면 보존과 개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대결의 시대를 청산하려하고 있는 이 즈음,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북방접경지역의 균형적 발전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철저한 환경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각인되었던 DMZ라는 벽은 어떤 형태로든 헐어버려야 하며,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군사적 대결의 탈피, 평화협정의 체결, 나아가서는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때 DMZ는 현재 우리의 삶의 부분을 말해주는 교육의 현장자료로서 사용되게 될 것이며, DMZ는 공동 개발된 역사의 현장, 생태계의 발전과정을 말해줄 역사와 과학의 현장으로 또는 국제적 관광 명소로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살아갈 주민들은 군이라는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여타지역의 주민과 같은 혜택과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민통선지역 주민의 생활과 평화생명 마을 건설

최근의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지속적으로 더욱 더 증진되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따라 우리 국토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도 새로운 방향의 설정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에 대비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DMZ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국

토이용 방안은 현시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간인 통제구역과 인접지역은 DMZ와 더불어 20세기가 빚어낸 동서냉전체제의 부산물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여러가지 테마(Theme) 즉, 生物多样性(Biodiversity), 地理(Geography), 戰後建築物등을 가지고 민·관이 힘을 합쳐 전쟁의 상흔과 살상의 구조물을 없애버리고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넘쳐흐르는 곳으로 바꿔내는 과정과 내용을 담을 그릇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통일이 되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한시적 지대이기 때문에 통일의 문턱이 가까워진 지금 이 지역이 안고 있는 최대의 잠재성을 파악하여야만 합니다.

DMZ와 민간인 통제구역이 만든 테마(Theme)로는 첫째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지역으로서 가치이며, 둘째는 중립의 공간, 화해와 용서의 장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셋째는 잃어버린 북쪽을 되찾고, 우리의 국토가 절반이 잘린 국토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 첫 발을 디딘 곳을 찾는 마음을 갖도록하는 북쪽으로 난 창입니다.

「한국 DMZ 평화생명마을」은 좋은 마음과 굳건한 의지를 가진 지구촌 사람들이 참

여와 협력의 정신으로 끊임없이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운동이자 사업이며 그 열매를 강원도민, 우리민족, 세계시민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평화생명운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자 조성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 비무장지대

지역개발이란 ①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한 물적 기반의 마련, ② 지역간 발전격차의 시정, 그리고 ③ 지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비무장지대의 지역개발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군사시설문제의 완전해결을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①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수 생태 및 환경의 보전과 관리체계 확립 ② 삶의 질과 경제활동이 활력을 갖는 정주생활환경의 개선 ③ 남북연결, 수도권과 동해안의 동서연결, 생활권역 내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④ 토지자원의 가치 및 활용도 제고 ⑤ 관광자원의 개발 연계화와 활용도 제고 ⑥ 남북관계에서의 역할 확대와 평화통일 기반조성 등입니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활용방안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중심의 활용, 둘째는 보전중심의 활용, 셋째는 개발중심+보전으로 보완, 넷째는 보전중

심+개발의 최소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선택하여온 유형은 첫째와 셋째 유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발전의 방향에서 우리의 여건을 고려할 때 넷째 유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향 결정에 앞서 선결해야 할 과제는 기초조사를 통한 자료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방향이 선택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남북을 잇는 연결교통망의 복구,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을 위한 면회소나 상봉장소를 적정지역에 마련, 또한 평화를 상징하는 자유지역을 만드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군사적인 목적에 부수되어 보전되어온 양호한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조직과 기구 그리고 시설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와같은 계획이 추진되기 위하여는 첫째 군사관련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의 정비와 최소화, 둘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립, 셋째 지역단위별 지역개발계획과 주요 사업확정, 무장지대에 대한 접근이 환경부, 건설교통부, 국방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관련학회와 연구기관의 지속적인 참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세계와 후대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바람직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할 것입니다.